

'23. 10. 2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스위스, 하마스 '테러단체' 분류 결정

- 10.12 스위스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“하마스가 저지른 충격적인 테러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”면서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분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
※ 정치권에서는 스위스가 팔레스타인에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

○ 프랑스, 학교서 교사 피살 및 안전경보 최고 단계 상향

- 10.13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 지역 고등학교에서 체첸 출신 남성 1명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이 사망하고 보안요원 등 3명이 부상, 이에 「마크롱」 대통령은 안전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
※ 범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의심받아 잠재적 위험인물 명단에 既 등재, 루브르박물관과 베르사유궁은 폭파 협박 등으로 하루 휴관·휴궁(10.14)

미주

○ 소셜미디어社, EU 규제 따라 테러 관련 게시물 삭제

- 10.14 언론은 EU가 디지털서비스법(DSA)에 근거해 이·팔 충돌 관련 가짜뉴스와 테러 관련 게시물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경고함에 따라 메타(페이스북)·X(舊 트위터) 등이 게시물·계정을 삭제했다고 보도

○ 미국, 이·팔 전쟁이후 테러위협 급증 우려

- 10.15 FBI는 브리핑을 통해 이·팔 전쟁이후 미국 內 테러 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유대교·이슬람 양측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, 종교시설 등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했다고 발표
※ 美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이 70대 남성에게 살해, 프랑스에서 고교 교사가 무슬림 남성에게 살해되는 등 전쟁의 영향이 의심되는 증오범죄가 증가

중 동

○ 국제사회,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우려

- 10.16 언론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이를 자제시키기 위한 목소리가 아랍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

※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재점령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전쟁 참여에 대하여 선을 그었으며, 중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선을 넘었다며 비판

아 · 태평양

○ 韓, 이스라엘 급파 軍 수송기 220명 태우고 무사 귀국

- 10.15 언론은 韓정부가 이스라엘에 軍 수송기(KC-330)를 급파해 우리 국민 163명을 포함 총 220명이 14일 22시경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보도

※ 同 수송기는 13일 오후 텔아비브에 도착 14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했으며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동승하여 귀국,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고 부언

○ 파키스탄 軍, 야간 공습으로 무장단체 6명 사살

- 10.15 파키스탄 국방부는 북서부 접경지역에서 야간 공습으로 무장단체 대원 6명 사살 및 8명을 제압,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에서 대테러작전을 지속 수행한 결과 무장세력 대다수를 소탕했다고 발표

※ 언론은 최근 아프간에서 은신하고 있던 현지 탈레반이 파키스탄 內 TTP 잔존세력에 합류, 집결 중으로 산발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 국군, 군사기지 대상 자살폭탄테러 공격저지

- 10.15 언론은 알샤바브 무장세력이 바리우지드 지역의 군사기지 대상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사전 첩보를 入手하여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저지하고 알샤바브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

※ 해당 지역청장 발표를 인용, 교전과정에서 군인 5명 사망, 부상 7명 발생했다고 부언

알샤바브, 소말리아 바이도아市 연쇄 자살폭탄테러

- '18.10.13 소말리아 바이도아市 식당·호텔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16명 사망·50명 부상
 - 최초 폭탄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'베데르 식당'으로 들어가 자폭하였으며, 이후 다른 남성이 '빌란 호텔'에서 2차 자폭
- 이슬람 테러단체 "알샤바브"*는 사건 배후를 자처하며, '소말리아 정부 관리들이 많이 방문하는 두 장소를 공격목표로 삼았다'고 주장
 - * 同 단체는 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경한 해석을 강요하고,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2007년부터 소말리아 중앙정부를 상대로 테러를 지속 자행
- 특히, 소말리아 정부는 同 테러가 '18.10.12 알샤바브를 겨냥한 미국의 공습 하루 뒤 발생한 점을 고려, 알샤바브의 보복성 테러로 판단
 - ※ 또한, 同 테러는 알샤바브 소행으로 추정되는 모가디슈 폭탄테러('17.10.14, 587명 사망) 1주기 추모식을 하루 앞두고 발생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내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副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全域 및 케냐내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
 - 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
 - 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